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손급리로
 내릴 때는 차감금리로!
 *고객이 돈 쓸 때만 금리 0.5%로
 대출할 때만 대출금리 0.5%로
 *이자가 오르면 오손급리로
 내릴 때는 차감금리로!
 *고객이 돈 쓸 때만 금리 0.5%로
 대출할 때만 대출금리 0.5%로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0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사상 최초로 신도증을 발급했다. 불교에 귀의해 불자로 살겠다는 신도로서의 종교인 신도증 발급을 계기로 심포에 귀의하는 참도와 불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본다. (권집자 주)

앞으로 혼탁해질 때에 가서, 깨끗하고 좋은 복덕과 인명장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온갖 상보를 경신하고 이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공양하며 법을 공양하며 승을 공양하면, 태어난 때부터 인상을 항상 얻어서, 왕·대신·통령·재직 등의 자리를 잃지 않고, 연년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 쾌락을 흠족 누린다. (대교원경)

항상 삼보에 귀의하면, 먼저 천중에 귀의하는 즐거움을 받고, 뒤에 가 깨달음의 과를 얻게 되리라. <제법집요경>

만약 청정한 신심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여래 계신 곳이나 성문 있는 곳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크게 착한 뜻을 일으켜, 불·법·승에 귀의해 여래의 청정한 계법을 받으면, 이는 다함이 없는 공덕이므로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존경경)

선남자·선녀인이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이제 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육망을 떠난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오니, 온갖 집단 중에서 가장 존귀한 승에 귀의하오니, 이같이 하면, 이

사람의 얻는 복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최후비경)

죄보가 무공하다 해도, 삼보에 귀의하여 계를 깨끗이 지키지 않는다면 더없는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게 되리라. (법천신학경)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리라. 밤낮으로 마음 속에서 열법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법에 귀의하면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리라. 밤낮으로 마음 속에서 열법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연연승호경)

비유하자면 부처님은 의사, 가르침은 건강, 교단은 간호인, 계는 약(良藥)이라 할 수 있다. (이비담비파사론)

네 가지 의심을 끊어 대처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취지를 확립한다. 첫째는 의혹을 끊음이고 둘째는 살중하는 마음을 끊음이며 셋째는 사견을 끊음이고 넷째는 정집을 끊음이다. 이는 이것을 네 가지 단속이라고 한다. (석미하연론)

관련기사 3면

비구니스님 대학진학 급증

동국대등 신입생스님 1백17명중 67명 2년새 10%늘어

비구니스님들의 대학진학이 대폭 늘고있다. 96학년도 동국대 서울과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의 신입생 비구, 비구니들은 총 1백17명. 이중 비구니는 67명(58%)으로 비구 50명에 비해 17명이 더 많은 진학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93년도까지 평균 50:50의 비율을 보던것에 비해 약10%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비구 45명, 비구니 59명(57%)에 이은 것으로 개화종단이 출범한 95학년도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비구니들은 경원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열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비구니들은 대학진학 이유에 대해 '현대교육을 받기위한 것(94년 승가대 설문조사에서 62.3% 응답)'으로 알려져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고수하며 폐쇄적이었던 비구니들의 기존 의식을 탈피, 대학진학열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6일 서울 회계사 대응전에서 열린 동국대 석림회 제33회 신입생 입학식에서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은 "해마다 동국대 불교대학 신입생중 비구니들의



◊월성 나팔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내의 소탑(사진). 영락과 풍경이 손상되지 않은채 그 아름다움을 그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이 소탑은 전형적 신라탑 양식으로 당대의 불탑 및 조각 양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비율이 높고 있다'며 '비구니 교육을 위한 종단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석림회의 유방스님은 "사람이나 신방에 가려는 비구에 비해 비구니들은 현대적인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동국대가 올해부터 종단추진장학금을 확대하여 조계종 승려의 경우 정암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어 비구니스님들의 교육열에 부응하고 있다고 동국대측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계종 승려는 총 1만8천11명이며 이중 48%가 비구니인 것으로 나타나 94년의 44%에 비해 2년사이 4%가 증가한 것도 비구니의 대학

봉영사인근 아파트·국청사 경내지 도로등 개발위주 행정에 전통사찰 '몸살'

최근들어 전통사찰을 비롯 사찰환경과 성보문화재가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훼손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봉영사의 말사인 남양주시 봉영사 인근 19층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비롯해 ▲부천시 청련암은 일주문에서 불과 20여미터 거리에 왕복 4차선 도로 건설 ▲부천시 평당사 승가대학근처 종합운동장 건설 ▲부산 국왕사의 경내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등 전통사찰보존을 무시한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경내지와 관련된 법령만 있을 뿐 경외지에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이 전통사찰 인근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현행법으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사찰환경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보급 금동사리함 발견

월성5층석탑서... 통일신라 소탑·불상등 봉안

금동탑과 불상이 들어있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사리함이 국보 제39호 월성 나팔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됐다. (관련기사 6면)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8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팔리 '월성 나팔리 오층석탑' 해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석탑 3층 옥개석 부분에서 금동탑 1기와 소탑 3기 및 불상 1구가 봉안된 금동사리함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리함 뚜껑 뒷면에는 연화초문(蓮華唐草文), 사방축면에는 사천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사리함 내부에서 발견된 금동탑 1기(높이 10cm)는 3층 탑신과 상륜부를 갖춘 전형적인 신라탑 양식을 하고 있다.

특히 상륜부 주위로 영락(瓔珞·구슬을 꿰 장식품)이 장식되어 있으며, 특히 주위에는 풍경(風鏡·경쇠)이 손상되지 않은 채 매달려 있어 당대의 불탑 및 불상, 조각양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음종 총무원장은) "일본측 대표들이 독도가 한국령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 목적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일본 닛코(日光)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성직자 대학원' 백지화 한다

정부·부산불교대책위 간담회 '어른무시 시인'

최근 불교계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고개위의 교육개혁안 중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 도입' 중·고등학교 종교교육 신설' 등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비서관이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 이를 완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종교관련 정책과 관련한 도봉, 정각, 남촌, 예지스님 등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특별대책위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문체부에서 김연수 문체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김용문 문체부 중무실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문체부장관 등은 성직자 관련 법안은 불교계와 관련한 도봉, 정각, 남촌, 예지스님 등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특별대책위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문체부에서 김연수 문체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김용문 문체부 중무실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문체부장관 등은 성직자 관련 법안은 불교

독도는 한국령

일본 불교지도자 공식 발표

독도영유권과 관련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독도는 한국령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준비회의에 참석한 총파스님

전자계산판 부디피어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포" 15면
 출가·열반집 특집 7·8·9·14면
 산문부의 해 일일악동 정형식 회장 5면
 국립 전통문화학교 설립된다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
 변화의 역경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심 이루는 각종 중전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압분배기, 용접기, 합선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회설비, 환형모터설비, 회차장치, 석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량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처리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사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한민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운송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